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9-6875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5-9551

組織活用의 實績은 增大되고 있다

協會부대사업의 으뜸은 中央共同販賣場의 활발한 움직임에 依存한다. 89年 4月直營으로 전환이후 꾸준한 成長세를 보여오던중 11月들어서 급기야 1억대의 去來실적을 達成하였다. 非營利法人體로서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生覺한다.

組織網의 再整備와 支援으로 系統出荷 실적 增大유도

協會의 유일한 부대사업체인 中央共同販賣場은 18년의 經綸을 쌓아왔지만 社團法人體 또는 정관상 기능제약에 의하여 항상 불통량이 극한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流通實態를 관찰하면 사통 팔달이된 교통 및 전신망에 의하여 전국이 日日生活卷에 있기때문에 전화한통만으로 각지역별 流通時勢를 파악하면서 유리한 方向으로 去來를 形成해 갈 수 있음으로 生産者들은 많은 物量을 委託販賣에다 依存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自給自足으로 되어 있는 協會體制下에서는 自體경영 해결이 우선하므로 설사 系統出荷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資金회전이 빠른 方向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常例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유도하면서 系統出荷를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共生共存을 위한 운영회전이 잘 이루워지지 않고 현상유지에만 급급해 온것이 오늘날까지의 現實이였다. 무엇보다 資金回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 系統出荷實績증대는 고사하고 物動量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마저 보여왔다. 이제는 경험도 많이 쌓았고 人的要素도 比較的 實하게 갖추어졌고, 資金의 융통도 어느 정도 可能한 처지에 왔으니 이時點에서 무언가 혁기적 운영전환을 기해야 되겠다는 宋會長의 決斷이 지난 초가을에야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直營體制로서의 信用度 向上을 위한 조기 결재처리

○經營部의 과감한 交替受權자세 발휘

○可能한 最大한의 資金支援으로 의욕적인 系統出荷유도(外上거래의 一切해결)

○行政 및 生産지도委員의 活動强化를 위한 실질적인 뒷받침 실행등을 果敢히 단행하므로서 오늘날까지 이룩할 수 없었던 外形去來 1억원대를 11月中 불과 20일만에 達成할 수 있는 신기록을 남게 하였다.

이는 實務陣의 각고한 노력의 代價로서 매우 고무적이며 치하할만한 사안이지만 一回用이 되지않도록 산하 生産會員들과 各級分所長들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相互共生 共存하는 信賴度를 유지向上시키는데 各別한 관심과 努力을 傾注하지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기때문에 모든 임직원과 會員들의 끊임없는 협조 지원이 더욱 要望되는 것이다.

行政지도와 生産지도 (實績파악)에 拍車를 가하자!

지난 8月1日付 발족한 바 있는 산하 行政 및 生産指導委員會는 10月初에 其實行방법을 세부교육한바 있다. 그후 各委員들은 귀향후 各支部別로 相當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各支部綠生會에 순방점석하고 돌아온 직원들의 평가다 이제 91年度分 實績評價여유는 1개월반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본다. 모처럼 委員會마저 구성코 協會位相을 높혀 보련는 획기적 시도에 좋은 結果가 나올수 있도록 最善의 성의와 勤勉性을 보여 주실것을 재삼 당부드리고 있다.

특히 91年度 生産실적파악은 어느때보다도 엄심히 파악해야 하며 모범적인 統計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全傘下 分所長들이 내 일같이 協助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示範的인 試圖는 내년도에 우리組織의 평가측도가 될것임을 再認識하시고 하는일에 더욱 拍車를 加해 주실것을 바라고 있다.

連載 韓方순례 >28<

〈續〉

③가운데손가락에 이상이 있을 때

가운데손가락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심장도 나쁘고 역시 혀도 나쁜 상태를 나타낸다.

④약손가락에 이상이 있을 때

약손가락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폐장과 코에 동시에 이상이 있든가 적어도 한 기관에 고장이 생겼음을 드러낸다.

⑤새끼손가락에 이상이 있을 때

새끼손가락에 이상이 생겼으면 이는 심장의 상태에 나쁜 이상이 생긴 징조이고 동시에 귀에도 건강상 이상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손가락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어느 손가락인지를 우선 구분하여 그 원인이 어느 내장기에서 볼어 연유되는지 찾아낼 일이다.

예를 들어 둘째손가락이 나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간장이 나쁘다는 것을 판별하게 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즉, 간장에 해로운 식품을 조심하고 간장과 연관된 순환경락을 원활히 하고 간장에 좋은 식품과 약물로써 보간(補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간장의 결정적인 질환에의 돌입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예방의학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갖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손가락으로 성격을 판단한다

성격의 형식이 내장기의 어떤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정변이 장기의 상태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전술한 일장에서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손가락이 내장기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관점에서 내장의 활력이 성격조성의 한 요인이 된다면 손가락의 어떤 상태에서 성격판단이 어느정도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피로했을 때는 (즉, 오장이 쇠약해 있을 때)주먹을 쥐고 싶지도 않고 또한 물건을 들고 있을 때에는 무겁다는 점에서보다 기분상 불건을 내팽개치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실마리가 풀린 사람처럼 보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이다.

담배 한가치를 잡는 모양에서도 그 특징이 잡힌다.

손가락 끝에 쥐는 사람은 힘이 손가락 끝까지 미쳐있는 사람으로 내장기에 이상이 없고 순응력도 갖춘 형태의 사람이다. 담배를 잡는 모양에서도 그 특징이 잡힌다.

손가락의 아랫부분으로 담배를 잡는 사람은 내장기의 이상으로 피로한 상태가 겉으로 표현된 쇠약한 형태로 매사에 의욕이 없고 착수한 일을 끝맺지 못한다.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으로 집고 있는 습관의 사람은 정신이 언제나 안정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신적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음식을 손끝으로 집어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격은 선천적인 것도 있으나 사람의 환경이나 교양에 따라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변화되며 또한 건강도 여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후천적인 것, 특히 건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성격은 극히 가변적인 것이므로 이를 그 사람의 인격자체와 연결시키는 것은 유의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3、손가락의 바른 사용법을 통한 내장기의 치료

내장기의 활성여부에 따라 손가락의 사용법이 흐트러진다면 손가락의 바른 사용법을 통해 내장기의 장애를 보완하는 도인법도 생각함직하고 또한 바르지 못한 사용법을 통해 내장기에 지장을 자초한다는 이론에 잠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겠다.

옛부터 손가락의 선천적인 기능에 입각하여 이를 사용하는 방법도 구분되어 있었다.

첫째,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은 똑바로 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가운데손가락과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은 둥글게 구부려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祝)

發展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제주도지부
지부장 김동균
북제주군사무소장 강휴철
서귀포시 〃 임경현
남제주군 〃 김오환
제주시 〃 조봉

◇서울특별시지부
종로구 사무소장 이용만 (공판장겸직)
영등포구 〃 김진형
동대문구 〃 박영출 (공판장겸직)
강동구 〃 손기수

◇대전직할시
지부장 서병문
중구 사무소장 이상국
동구 〃 한대규
서구 〃 김영신 (공판장겸직)
대덕구 〃 김정동 (공판장겸직)
유성구 〃 강영식 (공판장겸직)
시공판장장 이용우

◇광주직할시
지부장 문제기
동구 사무소장 문제형
광산구 〃 김태천 (공판장겸직)
북구 〃 박길수 (공판장겸직)
서구 〃 황반영 (공판장겸직)

1991年 11月 20日